

※ 빈칸에 들어갈 인물을 쓰시오.

1



생애 및 업적 ▶ (기원전 259~기원전 210)

- 법가 사상을 토대로 강력한 법치주의 정책과 부국강병책 실시 → 전국 시대 통일 (기원전 221)
- 처음으로 황제 칭호 사용 (시황제)
- **군현제** 시행, 화폐·문자·도량형 등 통일 →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 확립
- **분서갱유**를 단행하여 사상 통제 (기원전 212~) **3공 9경**
- **홍도를 물리치고 만리장성**을 쌓음 (동원, 기원전 215)

효문제



생애 및 업적 ▶ (467~499)

- **북위**의 제6대 황제 (재위 471~499) **493**
- 평성에서 **뤄양**으로 천도
- 호복 금지, 조정에서 선비어 사용 금지, 선비족 성의 한족화, 한족과의 혼인 장려 등 **적극적인 한화 정책** 시행 → 한·한 융합
- 유교적 소양을 갖춘 한족 문벌 귀족을 국가 통치에 활용 **485**
- **균전제**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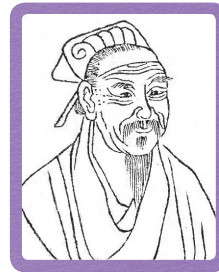
장보고



생애 및 업적 ▶ (? ~846 추정)

- 당에 건너가 서주(徐州) 무녕군(武寧軍)에 복무하여 장교가 됨
- **828년** 귀국 후 신라 흥덕왕에게 건의하여 **청해진 설치** (~851)
-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적을 소탕하고 동중국해 일대의 해상권 장악 → 당, 신라, 일본을 잇는 국제 무역 주도
- 산둥반도에 **적산 법화원**을 건립하고 이를 지원
- 신라의 왕위 계승 분쟁에 관여하였다가 피살됨

2



생애 및 업적 ▶ (1130~1200)

- 남송대에 **성리학** 집대성
-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은 본질인 '성(性)'이야말로 모든 인간과 자연의 본질인 '이(理)'와 같은 것이라 이해하여 **성리(性即理)**를 주장
- 인간 본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적 수양 방법으로 **거경궁리와 격물치지**를 강조
- 오경보다 사서(『논어』, 『맹자』, 『대학』, 『중용』) 중시 → **『사서집주』 저술** 1177
- **백록동 서원을 다시 일으켜** 1179 후학 양성에 노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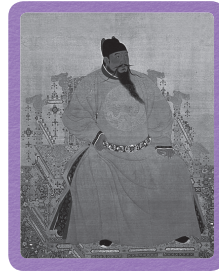
쿠빌라이 칸



생애 및 업적 (1215~1294)

- 몽골 제국의 제5대 칸 (재위 1260 ~ 1294)
- 수도를 카라코룸에서 대도(베이징)로 옮김 1272
- 1271년 국호를 '원'으로 고침
- 1279. • 남송을 멸망시키고 유목 민족 최초로 중국 전역을 지배
- 두 차례 일본 원정군을 파병하였으나 일본 정복에 실패  
1274 → 1281

3



생애 및 업적 (1360~1424)

- 명의 제3대 황제 (재위 1402 ~ 1424) 1421
- 베이징에 자금성 건축, 이후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천도
- 북방의 몽골을 공격하고, 남쪽으로는 대월 정복 1407
- 정화에게 대선단을 이끌고 항해에 나서게 함 1405 ~ 1433
- 1415. • 일본 무로마치 막부와 감함 무역 전개 1404 ~
- 『성리대전』 편찬 → 과거 시험의 교재로 활용

도요토미 히데요시



생애 및 업적 (1537 추정~1598)

- 오다 노부나가와 더불어 권력을 잡음 1582
- 1590년 센고쿠 시대 통일
- 전국적인 토지 조사(검지)를 시행하고 토지 단위와 도량형을 통일
- 농민의 무기를 거두어들이고 신분 이동을 금지, 농민과 무사의 거주 지역 분리 등 → 병농 분리 정책 추진
- 1592년 영토 확장과 무역 확대를 위해 조선 침략(임진왜란)

4



생애 및 업적 (1654~1722)

- 청의 제4대 황제 (재위 1661 ~ 1722)
- 삼번의 난(1673~1681) 진압
- 타이완의 정씨 세력 진압 후 천계령 해제 1661 ~ 1683 → 1684
- 러시아 표트르 대제와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 1689
- 『고금도서집성』 편찬 시작 ~ 1725

5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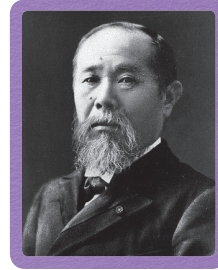
생애 및 업적 (1823~1901)

- 1851~1864 •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나자 향용을 조직하여 진압에 나섬
- 청 조정의 신뢰를 받아 중체서용의 방식으로 양무운동 전개
- 청일 전쟁 이후 청국 대표로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, 이후 중앙 정치에서 밀려남

1861~1894

1895, 4월

이토 히로부미



생애 및 업적 (1841~1909) 조슈번, 1866~

- 하급 무사 가문 출신으로 존왕양이 운동에 참가
- 메이지 유신에 참가 (1868~1912)
- 1871년 이와쿠라 사절단의 일원으로 1년 10개월 동안 미국과 유럽 등을 시찰
- 독일, 이탈리아 등을 방문하여 법학을 배우고 귀국 후 '대일본 제국 헌법' 작성 주도
- 초대 내각 총리대신을 비롯해 네 차례 총리 역임, 을사조약 이후 초대 조선 통감으로 파견
- 1909년 만주 하얼빈을 방문하였다가 안중근에게 사살됨

1889

190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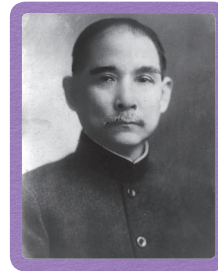
6



생애 및 업적 (1851~1894)

- 박규수에게 개화사상을 배움
-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급진적 개화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
- 1884년 갑신정변 주도
- 갑신정변 실패 이후 일본으로 망명하였으나 일본 정부로부터 홀대를 받음
- 1894년 청의 상하이로 망명
- 홍종우에게 상하이에서 암살당함

쑨원



생애 및 업적 (1866~1925)

- 미국 하와이에서 홍중회를 조직
- 광저우에서 반청 무장봉기를 추진하였으나 실패한 후 해외 망명
- 1905년에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과 화교들을 중심으로 중국(혁명) 동맹회 결성 → 상민주의
- 1911년 우창 봉기가 일어나자 귀국하여 1912년에 수립된 중화민국 초대 임시 대통령에 취임
- 1919년에 중화 혁명당을 개조하여 중국 국민당 결성

192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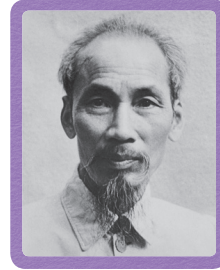
장제스



생애 및 업적 (1887~1975)

- 일본 유학 시절 중국 (혁명) 동맹회에 가입하여 활동
- *1924* 황푸 군관 학교 교장에 취임
- 쑨원 사후 국민 정부를 이끌었음
- 군벌 타도를 위한 북벌 시작(1926) → 베이징을 점령하여 북벌 완성(1928)
- *1937~1944* 제2차 국공 합작을 결성하여 항일전 전개
- 중국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사실상 패배 → 타이완으로 이동
- 1949년 이후 타이완에서 계엄 통치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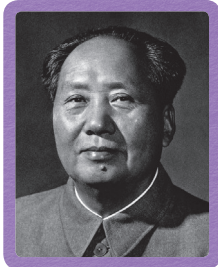
7



생애 및 업적 (1890~1969)

- 1925년 베트남 최초의 사회주의 단체인 베트남 청년 혁명 동지회를 결성 → 사회주의 이념 전파
- 1930년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조직
- 1941년 중국에서 베트남 독립 동맹(베트민) 결성
-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베트남 민주 공화국 수립 → 이를 인정하지 않는 프랑스와 전쟁(1946~1954)
-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(베트콩)을 지원 *1960~*

마오쩌둥



생애 및 업적 (1893~1976)

- 중국 공산당 창당에 참가 *1921*
- 중국 국민당의 탄압을 피해 대장정 감행(1934~1936)
- 1949년 베이징에서 중화 인민 공화국 수립 선포, 국가 주석에 취임
- 1958년부터 대약진 운동을 펼쳐 인민공사를 설립하는 등 급진적 공산주의화 추진 *1966~1968*
- 1966년 문화 대혁명을 일으킴, 홍위병을 앞세워 실용주의를 주장하는 반대파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

8



생애 및 업적 (1904~1997)

- 1976년 마오쩌둥의 사망 이후 집권 *1978~*
- 실용주의 노선 채택 → 중국의 개혁·개방 정책 주도
- 상하이 등 동남 해안 지역 개방, 경제특구 설치 *1979*
- 1989년 민주적 개혁을 요구하는 톈안먼 사건을 무력으로 진압
- 1992년 우창, 선전, 상하이 등 중국의 남부 지방을 시찰 → 개혁·개방 정책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(남순 강화)

정답

- 1 진시황제 2 주희 3 영락제 4 강희제 5 이홍장 6 김옥균 7 호찌민 8 덩샤오핑